

中共軍 正月攻勢時 리지웨이와 彭德懷의 作戰指導

田 鍾 淳
(육군대학 전쟁사교관)

1. 序 論
2. 作戰限界點의 概念 및 適用
3. 中共軍 正月攻勢時 피아의 作戰指導 分析
4. 結 論

1. 序 論

이 논문의 내용은 한국전쟁 기간 중 중공군의 정월 공세시 피아 작전책임자였던 彭德懷와 리지웨이의 作戰指導를 고찰하는 것이다.

'作戰指導'라는 용어는 "전투 또는 전역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투가 수행되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대의 작전적 운용을 의미한다. 作戰指導의 내용에는 지휘관이 작전구상과 작

전 진행간에 내린 중요한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작전구상단계만 해도 많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진행단계에서도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피아 지휘관의 작전지도를 분석하되,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분석의 틀'을 한정하고자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戰鬥力의 保全을 통해 부대가 보유한 戰鬥力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전투력 자체는 본질 및 속성상 그 힘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限界를 잘 인식하고 극복해야만 제한된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조기에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서 중공군의 正月攻勢는 1, 2차 공세를 통해 많은 전투력의 손실을 본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毛澤東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한 作戰이었다. 특히 중공군의 경우 그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투근무지원상의 문제와 더불어 1, 2차 공세 이후 급격히 저하된 전투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실시한 공세작전이었던 만큼 작전성공의 여부는 피아 공히 "나의 전투력을 어떻게 보전하면서 적의 전투력을 소멸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아 지휘관의 작전지도를 분석하되 '분석의 틀'을 작전한계점에 국한시키고자 한다.

작전한계점에 관해서는 용어의 통일과 개념만 정립되었을 뿐 작전을 구상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전한계점을 적용하고,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작전한계점 자체가 '術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定型化·計量化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으나, 실제로 모든 훈련이나 연습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 힘든 문제의 해결은 자기계발, 또는 전사연구를 통한 논리적 응용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실제 作戰 또는 훈련이나 연습간에 적용을 하기에 앞서 전사연구를 통해 특정 戰理나 教理들이 당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또는 미래에 적용될 軍事理論을 계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작전한계점에 대해서 戰例를 통해 피아 지휘관의 작전지도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作戰指導가 작전구상에서부터 진행단계까지 지휘관의 제반 조치가 포함되듯이, 작전한계점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공군의 正月攻勢는 작전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작전한계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지휘관은 어떠한 판단과 조치를 취했는지 克明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戰例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몇 가지 戰例, 특히 中共軍의 正月攻勢를 중심으로 작전한계점의 적용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군의 작전한계점에 대한 교리발전과, 이를 기초로 제대별 지휘관의 작전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고자 한다.

2. 作戰限界點의 概念 및 適用

(1) 작전한계점 개념 및 적용

戰鬪力이란 지휘관에게 가용한 물질적인 수단과 그 부대의 정신전력의 결합체이다.¹⁾ 이러한 전투력이 갖는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 중의

1) 김광석 編著, 『용병술어연구』(서울 : 병학사, 1993), p. 516.

하나가 遞減性(또는 衰弱性)이다. 이것은 전투력 역시 '힘(力)'이 갖는 속성과 마찬가지로 이동 또는 적으로부터의 타격 등 전장의 마찰요인에 의해서 점차 쇠약해지다가 마침내는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고무줄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즉, 고무줄을 고유의 彈性限界까지만 늘일 경우에는 본래의 형태로 復元 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초과할 경우 끊어져 버려 원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전투력의 한계를 초과하여 무리한 작전을 수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敗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전투력의 한계가 고무줄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점은, 고무줄의 彈性限界가 絕對的이라면 전투력의 한계는 相對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彼我가 대등하거나 또는 어느 한편이 우월했던 상대적 전투력이 여러 가지 영향요인(시간, 교전 마찰 등)에 의해 逆轉되는 시점(또는 지점)이 존재하게 되며, 이 시점은 고무줄의 탄성한계처럼 固定的인 常數(Constant)값이 아니라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투력의 본질적 한계성으로 인해 작전한계점의 이론이 생겨나게 되며, 결국 이 한계점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전투력을 保全하여 주도권을 유지하느냐가 勝敗의 관건이 된다.

현재 야전교범 100-1 「지상작전」에는 작전한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²⁾

작전한계점은 작전부대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및 시기로서 지휘관은 작전한계점을 고려하여 작전을 구상하여야 한다. 공격시 작전한계점은 공자가 더 이상 공격을 계속할 수 없는 시점이며, 방어시에는 공세이전의 능력을 상실했거나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2) 陸軍本部, 野戰教範 100-1 「地上作戰」, 1999, p. 3-22.

앞에서 작전한계점은 고정적인 常數가 아니라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관의 상황판단 및 조치결과 여하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可變的인 요소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휘관이 전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황판단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제반 전쟁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실제 보유한 전투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작전거리를³⁾ 대폭 증대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투에서 ‘기습’을 달성했다면 전투력을 3배 이상 증폭시키게 되고, 그 효과는 1~3일 이상 지속되는 효과를 갖고 있다.⁴⁾

작전한계점은 계획수립시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공자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지휘관은 신중하게 彼我의 물리적·심리적 상태를 판단하여 작전한계점을 예측하고, 만일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할 것이 예상된다면 전투력의 재보충 및 투입, 작전의 단계화 등을 구상하거나 필요하다면 작전휴지(作戰休止)⁵⁾ 등을 계획해야 한다.

일단 작전이 개시되면 지휘관은 彼我 모두의 物理的, 心理的 전투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자기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언제 작전한계점에 봉착할 것인지, 또는 봉착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그 시점에서는 차후 자기가 선

3) 작전거리(Operational Reach)는 군사력이 결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전투력, 지속능력, 지형 등의 요소가 작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작전거리는 부대 및 예비대의 적절한 투입, 기지 및 지원부대의 전방 배치, 무기체계의 사거리 증대, 보급군기 및 병참선(LOC) 향상 등을 통해 증대시킬 수 있다.

U. S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Field Manual 3-0 ‘Operations’, June, 2001, p. 5-10.

4) James F. Dunnigan, *How to make war*, 김명관 譯, 『현대전의 실제』(서울: 현실적 지성, 1999), p. 7.

5) 작전휴지(作戰休止: Operational Pause) 작전거리의 신장 또는 작전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의도적 停止를 의미한다.

U.S Headquarters of the Army, *op. cit.*, pp. 5-10~5-11.

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전의 형태를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작전한계점은 계획수립시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적용된다.

(2) 作戰限界點에 도달하는 요인 및 극복방법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 주요 원인은 먼저, 전투력 자체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 또는 전장의 마찰요인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저하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불충분한 군수지원, 병참선(LOC)의 과도한 신장, 결정적인 전투 이전의 과도한 전투력 손실, 적측에 새로운 부대가 투입된 경우 등, 주로 물리적인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적인 면에서는 이미 사기가 저하되었거나 약화된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 전투원의 意志가 상실되었을 경우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몇 가지 일반적인 요인만으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작전한계점은 術的인 요소로 위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때로는 물리적, 때로는 심리적 요인들에 의해, 또는 위에 기술되지 않은 의외의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듀피(T. N. Dupuy)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 8개의 相異한 전투에 참전했던 미군들을 대상으로 작전한계점 도달요인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⁶⁾ 많은 인원이 제시한 한계점 도달의 지배적인 요인은 약 30여 개 항목으로 집약되었는데, 훈련부족과 많은 사상자 수, 가공할 적의 군사력, 통신망의 결핍, 指揮力의 부족, 공중지원과 탄약부족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6) T. N. Dupuy, *Understanding Defeat*, 최중호, 정길현 共譯, 『敗戰分析』(서울: 삼우사, 2000), pp. 39~56., pp. 73~78., pp. 279~295.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지적한 것이 기술적 결함, 즉 적이 측면 또는 후방으로 기동하여 아군을 포위한 경우였다. 이 사항은 통상 우리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 주요 원인을 전투근무지원의 부족이나 결핍, 높은 사상자율 등으로 알고 있으나, “적군이 후미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심리적 공황 자체가 한계점에 이르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도 그의 저서 「戰爭論」에서 “물질적 손실의 비율은 전투과정에서 어렵게나마 측정할 수 있으나, 정신적 손실의 비율은 측정될 수 없다. 전투에서 정신적 전투력의 손실은 승패 결정의 지배적 원인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奇襲’의 요소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역사상으로 패배한 전례 100여 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가 기습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⁷⁾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美 陸軍은 中共軍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慣用戰術인 ‘정면에서의 맹렬한 압박과 후방으로의 縱深機動’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결과 전쟁 첫째 동안 정신병 환자의 비율이 제2차 세계대전의 평균 비율보다 거의 7배나 더 높았으며, 전쟁의 양상이 고착화되어 전선이 안정됨으로써 후방으로의 위협이 감소되었을 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신병 환자의 평균 발생률이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 감소하였다.⁸⁾

그렇다면 어떻게 작전한계점을 극복하고 작전거리를 증대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기술한 작전한계점에 도달케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 자체가 극복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7) Carl von Clausewitz, *On War*, 류제승 譯, 「戰爭論」(서울: 책세상, 1998), pp. 196~197.

8) Richard D. Hooker, Jr.,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이승호 譯, 「機動戰 理論과 實際」(서울: 열린교육사, 1999), pp. 160~161.

먼저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攻者의 입장에서는 공격기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先決要件이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승리한 직후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공격기세가 정지되거나 병사가 순간적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자마자 심리적, 생리적으로 무능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격기세의 유지와 아울러 防者가 敗走할 경우 적을 추격하고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적을 완전히 격멸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역사적으로도 전투에서 엄청난 殺傷은 적이 등을 돌리고 敗走했을 때 실시되는 추격기간 동안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인간이 本能的으로 가지고 있는 살상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방이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心理的인 距離感”을 제공함으로써 살상저항감이 감소되어 무자비한 학살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치, 공산당, 그리고 암흑가에서의 死刑이 통상 머리 뒤에서, 또는 死刑囚의 눈을 가리고 집행되는 것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⁹⁾

따라서 防者의 입장에서는 공자에게 살상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을 주지 않는 것—적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공자의 여하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陣地를 지키는 “頑強한 防禦”,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반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심리적인 면 외에 물리적인 면에서 작전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운 전투력(예비대의 투입, 조공의 主攻化 등)으로 결정적인 지점에서 우세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작전의 템포(Tempo of Operation)를 달성해야 한다. 템포는 행동의 리듬으로서 신속한 템포를 통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¹⁰⁾ 셋째, 결정적인 전투 이전까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교전을 회피하면서 최소의 전투로 적의 배후를 지향해야 한다.

9) Ibid., pp. 147~196.

10) 미 해병대사령부, MCDPI-2, *Campaigning*, 1998, p. 69.

한편, 防者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자의 공격기세를 와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¹¹⁾ 공자의 기세를 와해시킨다는 것은 공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마찰요인을 증대시켜 공자가 겨냥하고 있는 작전의 템포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공자는 작전의 템포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의 교전으로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할 것이므로 防者는 攻勢的 防禦, 소부대 공세행동 등을 통해서 공자로 하여금 最大限의 교전을 겪도록 강요하는 것이며, 이로써 공자의 작전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攻者나 防者의 입장에서 새로운 부대(豫備隊)의 투입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너무 早期에 예비대를 투입하여 결정적인 전투 이전에 무기력하게 되거나, 또는 너무 늦게 투입하여 반격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투입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3) 作戰限界點을 초과하는 이유

역사상 전례를 보면 대부분 작전한계점을 초과한 상태에서도 무리한 작전을 계속함으로써 결국 파국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작전한계점을 넘어서까지 무리하게 작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 Hall 대령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¹²⁾

첫째, 상급부대의 성공을 위해 예하부대의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Tactical Bunt)이다.

둘째, 상호 격렬한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彼我 공히 전투에 몰입되어 작전한계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잘못된 영웅심(Heroism)에서 비롯된다. 비록 영웅적인 행동과 용기가 군인에게 있어 최상의 德目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 무모한

11) 육군 교육사령부, 『軍事理論研究』, 1987, pp. 439~434.

12) George M. Hall, *Culmination Point*, Military Review, U.S Army Command General Staff College, July, 1989, pp. 84 ~85.

영웅심에 사로잡혀 객관적 상황판단보다는 강력한 의지와 기대심리로 인해 주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작전한계점을 넘어 무리하게 작전을 계속할 경우 어떤 현상이 초래되는가? 그 결과는 한 마디로 “조직의 와해”이다. 즉 투항자가 속출하고, 심지어는 집단으로 적에게 투항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다량의 장비를 유기하는 등, 개인적 생존의식이 조직의 목적을 지배하게 되어 결국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破局으로 치닫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흑자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에 대해 적전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만일 攻者가 작전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작전의 형태를 변경시키거나 새로운 부대의 투입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관성에 의해 공격을 계속할 수는 있다.

실례로, 한국전쟁시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은 8월 공세를 종료한 시점에서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9월 공세는 이미 작전한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攻擊開始線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병력면에서 북한군은 84,000명, 아군은 82,100명으로 彼我が 대등하였으나, 북한군의 경우에는 약 32%에 달하는 노련한 戰鬥兵들은 낙동강선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전사하였고, 남한 점령지역에서 강제로 동원한 의용군으로 보충한 상태였다.

전차의 경우 아군이 6:1로 우세하였고, 野砲 및 迫擊砲 역시 북한군은 70%가 파괴된 상태였으며, 탄약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북한군은 남쪽으로의 공격에 따라 兵站線이 과도하게 신장되었고,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식량, 무기, 탄약 등 보급지원에 많은 제한을 받아 전투력은 開戰 초기에 비해 약 50~60% 선으로 감소된 상황이었다.

심리적인 면에서도 병력 자체가 강제로 징집된 의용군이었으므로 전투의 지도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유엔군의

될 새 없는 폭격으로 극도의 전투피로 및 전장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戰後 극동 공군사령부가 북한군 포로 825명을 대상으로 ‘士氣를 저하시킨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식량부족이 21.4%로 가장 높았고, 항공기 공격 17.9%, 훈련부족 11.3% 순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장비부족, 도망병의 누적, 장교의 확대 및 협박적 지휘 등으로 나타났다.¹³⁾

이와 같이 상대적 전투력이 열세한 상황하에서 북한군은 9월에 공세를 감행하였고, 유엔군은 영천이 피탈되고, 안강·기계지역에 대규모 돌파구가 형성되는 등 낙동강 전 전선에 걸쳐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미 제8군사령관은 데이비드슨 線(Davidson Line)으로 철수할 것을 고려할 정도였다.

이미 작전한계점을 초과한 상황에서 실시한 북한군의 공격에 대해 이와 같이 아군이 밀리게 된 원인은 유엔군 자체의 문제였다. 당시 미 제8군의 정보관단에 의하면 戰力比가 아군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여 그들의 戰力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정보의 부재 및 오판과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후퇴심리’였다. 즉 開戰 이후부터 낙동강방어선까지 후퇴만을 거듭해 온 유엔군은 적에 대해 일종의 공포감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이 전군에 만연되어 타성화(Retreating Inertia)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열세한 전투력으로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 분석 가능한 것은 “왜 북한군은 작전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공격을 계속하였는가”이다. 먼저 북한군이 그들의 작전한계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북한군은 8월 공세 이후부터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고참병들로 督戰隊를 편성하여 전투를 기피하거나 도망 또는 투항을 企圖하는 자를 발견하는 대로 사살하는 등의

13) 日本 陸戰史研究普及會 編, 「朝鮮戰爭(2)」,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譯 「한국전쟁(2)」, 1986, pp. 241~242.

비상수단을 강구하고 있었다.¹⁴⁾ 미 제8군이 북한군의 군기가 엄정하고 사기가 충만하다고 오관한 것도 바로 이 督戰隊의 활동으로 인해 북한군의 戰場 이탈자와 투항병들이 의외로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공격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김일성의 정치적·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하부대의 전술적 희생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최고사령관인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최종목표인 부산을 점령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강한 신념과 영웅주의적 思考에 집착하여 戰況 전반에 걸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강렬한 의지와 기대심리로 예하부대에 무리한 독전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전례는 독일 파울루스 제6군의 스탈린그라드 진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둘째, 공격만이 그들에게 남은 최선의 방책이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작전의 형태 변경이나 작전휴지 등의 조치는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작전한계점을 초과한 상황이라는 것은 작전의 형태를 변경할 시점마저도 상실한 것을 의미하며,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 만일 북한군이 수세로 전환했다면 오히려 계속되는 유엔군의 增援을 막을 길이 전혀 없었고, 전선이 교착되게 되면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대안은 공격이었다.

이와 같이 작전한계점을 넘어 무리한 공격을 감행한 북한군의 末路는 1950년 9월 27일자 '아사히신문'이 "雲散霧消"라고 표현한 것처럼, 9월 공세 초기에 약 9만 8천명에 달했던 북한군이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작전으로 불과 25,000~30,000명만 북한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병력은 마치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지듯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 것이었다. 실제로 북으로 귀환한 병력을 제외한 나머지 68,000~73,000여 명의 병력은 포로 및 게릴라화된 인원이 약 3만 명, 그 외 약 4만 명은

14) 上揭書, pp. 37~38.

남한에서 강제 징집된 자들로 부대를 이탈하여 귀향해 버리고 말았다. 특히 북한군 제13사단의 경우에는 포병연대장, 참모장, 자주포 대대장, 제21연대장 등 주요 지휘관이 모두 투항하였고, 제19연대장은 부하 167명과 함께 집단으로 투항하였다.¹⁵⁾

위의 전례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부대가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작전을 지속할 수는 있되, 그 결과가 참담하고 다시는 再活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며, 그 이후의 어떤 조치도 결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3. 中共軍 正月攻勢時 彼我的 作戰指導 分析

(1) 1950年 末 彼我的 政治·軍事的 狀況

북진작전을 실시한 유엔군은 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크리스마스' 공세를 실시하였으나, 중공군의 2차 공세로 38도선까지 철수하였다.

철수과정에서 유엔군의 철수속도가 중공군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었으며, 중공군의 추격은 자체적인 보급지원의 문제로 일단 38도선에서 멈추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된 미국의 전쟁지도부는 “한반도의 어딘가에서 방어선을 유지하여 미국의 개입을 신속하고 명예롭게 종식시키자”는 방향으로, 즉 정치적 협상에 의한 휴전을 통해 한국전쟁을 마무리하려는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었다.¹⁶⁾

15) 上揭書, pp. 137~142.

16) Memo of Conversation at the White House, December 3, 1950, *FRUS*, 1950, VII.

이제 전선의 전황이 휴전을 수용할 정도의 수준에서 안정될 필요가 있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 당시 38도선에서의 유엔군 방어선은 강력한 예비대를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한 지점이 돌파되면 방어정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선형진지로 편성되어 매우 빈약한 상황이었다.

이럴 즈음 미 제8군사령관인 워커장군이 교통사고로 전사하자, 육군본부 행정·작전참모부장으로 있던 리지웨이 장군이 새로운 지휘관으로 교체되었다. 새로운 지휘관으로서 전선을 돌아본 리지웨이는 불완전한 방어선보다 적에 대한 정보의不在와, 떨어진 사기, 그리고 싸울 용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패배의식 등을 가장 먼저 척결해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한편, 1950년 10월 19일 한국전쟁에 개입한 中共軍은 12월 4일 평양을 탈환한데 이어, 12월 중순까지는 북한군이 잃었던 38선 북쪽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38선 일대에서 유엔군과 대치하게 된 中國 志願軍司令官 彭德懷는 부대정비와 보급문제를 해결하고 증원부대인 제19병단(9개 사단)의 도착을 고려하여 “1951년 2~3월경에 38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탈취한다”는 3차 공세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모택동은 팽덕회가 건의한 2~3월 공세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38선에서 부대가 정지할 경우, 유엔군에게 戰力回復의 기회를 제공할 뿐이며, 계속 공격해야만 현재 유엔군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패전 분위기를 고조시켜 조기에 한반도에서 철수할 것이다”는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여, “조기에 38선을 돌파하여 서울을 점령 후, 1~2개월 정도의 휴식기간을 부여”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¹⁷⁾

이와 같은 모택동의 서울 점령 지침에 따라 志願軍司令官 彭德懷는 공세

pp. 1336~1339.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서울 : 집문당, 2001), p. 858. 再引用

17) 中國人民解放軍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 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서울 : 世經社, 1991), pp. 84~87, p. 94.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중공군과 북한군을 통합 지휘할 연합사령부가 설치되고, 대대적인 병력보충과 함께 후방보급 및 수송체계가 개편되었으며, 현지조달 등으로 30,000여 톤의 식량을 확보하였다.

중공군은 1, 2차 공세를 통해 큰 戰勝을 거두긴 했으나, 결정적으로 유엔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고, 그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투근무지원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38도선까지 진출함에 따른 병참선의 신장으로 인한 보급지원상의 어려움이 공격기세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제한사항이었으며, 충분한 재정비 없이 다시 작전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2) 彼我的 作戰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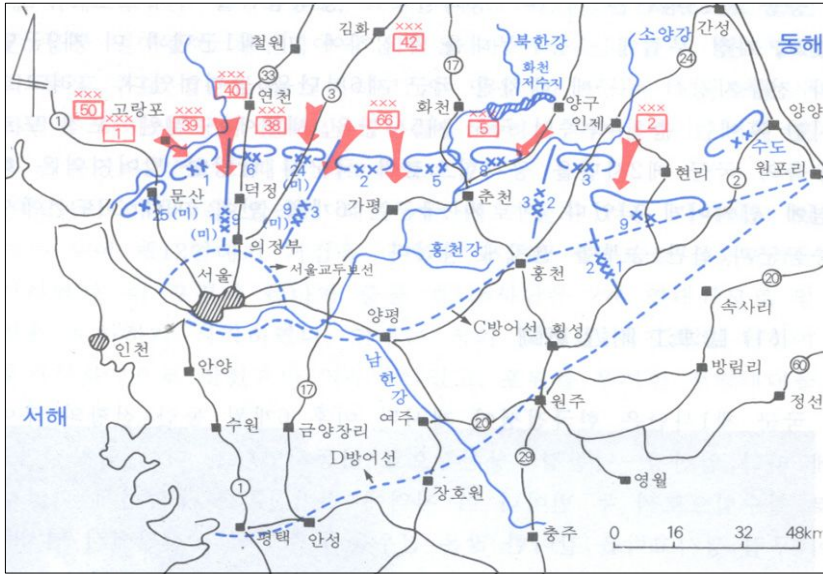
정월공세시 중공군의 作戰目的은 1, 2차 공세에서 획득한 승리를 확대하여 서울을 점령함으로써 정치·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이후 37도선까지 진출해서 부대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부대를 증원 받은 후 春季攻勢를 준비하는 것이었다.¹⁸⁾

彭德懷는 12월 31일을 공격개시일로 정하고 서울을 목표로 하는 주공과 함께 가평-춘천과 홍천-자은리 방향으로 공격하는 2개의 조공부대를 운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을 공격하는 주공부대는 중공군 4개 군(제 38, 39, 40, 50군)과 북한군 1개 군단 등 5개 군단으로 편성하고, 가평-춘천 방향에는 중공군 2개 군(제 42, 66군)을, 홍천-자은리 방향에는 북한군 2개 군단을 투입함으로써, 전 전선에는 총 9개 군단이 공격에 가담하였다.

중공군의 공격에 대비한 미 제8군사령관에게 미 본토로부터 하달된 전략적 방침은 “人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을 계속한다. 그러나 더 이상의 증원은 당분간 불

18) 國防軍史研究所, 『韓國戰爭(中)』, 1996, pp. 288~289.

<요도 1> 中共軍의 正月攻勢(1950. 12. 31~1951. 1. 1)



출처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戰爭(中)』, 1996, p. 295.

가능하다. 그러므로 軍事的으로 한계에 도달하면 일본으로 철수하여 이를 방위한다”는 것이었다.¹⁹⁾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방어계획은 축차방어계획으로 결정되었으며, 작전 방침은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 축차적인 지연전을 수행하되 적에게 최대한 출혈을 강요하고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공세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6개의 축차적인 방어선을 설정하였다.²⁰⁾

그러나 리지웨이는 이 방어선들이 철수를 위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며,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

19) 陸軍本部, 軍事研究室 譯, 前掲書, p. 192.

20) 國防軍史研究所, 前掲書, pp. 289 ~290 ; 온창일, 前掲書, p. 868.

로 전환해서 적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가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기 위한 선임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3) 作戰經過

미 제8군의 판단과 중공군 포로들의 진술대로 중공군은 1950년 12월 31일 17시 단시간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에 약 200km에 걸친 전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하였다.

먼저 서부전선에 배치된 중공군은 공격준비사격과 함께 임진강을 도하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다. 연천 지역에서는 피난민을 앞세워 지뢰지대를 개척한 후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투입하였다. 공격이 개시된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부터는 이미 유엔군의 방어진지의 전방은 물론이고, 좌우 및 후방으로부터 중공군의 공격이 거세게 실시되었다.

이때 중공군은 문산 우측의 한국군 제1사단과 동두천의 한국군 제6사단 등 한국군 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한국군은 준비된 진지에서 최대한 적을 저지하였으나 중공군의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를 당해낼 수 없었다.

1951년 1월 1일 새벽, 중공군의 대부대가 한국군 2개 사단의 후방지역으로 진출하면서부터 전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방어진지의 일부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고 08시가 되어 항공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우 적과 접촉을 단절하고 예비진지로 철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전투현장을 시찰하던 리지웨이는 한국군 제1, 6사단의 정면에 형성된 돌파구가 예상외로 심각하고, 중동부 전선의 한국군 제3군단도 북한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적에게 포위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리지웨이는 미 제8군의 지휘권을 인수한지 6일 만인 1951년 1월 1일 정오, 전 부대에게 한강 양평-홍천 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어서 1월 3일 오후에는 미 제1군단과 9군단에게 한강선에서 철수하여 평택-안성선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의 서울 철수명령에 따라 한강 이북의 모든 부대들은 한강에 설치된 임시교량을 이용하여 철수하였으며, 1월 4일 13시경 엄호부대인 미 제25사단 27연대가 마지막으로 철수함으로써 한강 이북의 모든 부대가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어서 14시에 임시교량을 폭파시킨지 얼마 안된 15시경 중공군은 서울을 점령하였다.

한강선에서 철수한 유엔군은 수원과 오산을 지나 단숨에 37도선까지 후퇴하였으며, 1월 6일 평택-안성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한편 중부전선 한국군 제8사단과 3사단이 배치된 홍천-자은리 방향에서는 12월 중순경부터 이미 북한군 제10사단이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따라 아군 후방으로 事前 침투하여 그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유격대와 합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2개 군단과 함께 전후방에서 동시 공격을 감행하여 한국군 2개 사단을 돌파하였으며, 원주-평창-영월-단양 일대까지 진출함으로써 유엔군은 부산-안동 간의 후방 병참선이 위협을 받는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기를 맞은 리지웨이는 1월 3일부터 미 제10군단에 한국군 제3군단(3개 사단)을 배속하여 미 제2, 7사단 등 5개 사단으로 양평-홍천 간의 48km에 달하는 방어선을 점령하도록 하였다.

1월 8일까지의 작전에서 아군은 평택-안성-계천-삼척선까지 철수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계속된 동계전투로 추위와 피로에 지쳐있었고, 과도한 병참선의 신장과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 인해 보급품이 고갈된 상황이었다.

이때 彭德懷는 중공군의 공세기간 중 유엔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한 것은 유엔군이 계획적으로 철수작전을 실시해서 중공군을 유인한 후 측후방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반격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추격은 유엔군의 작전에 이용당하는 꼴이 되며, 장차 춘계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격을 정지하고 1월 8일을 기해 정월공세를 종료하였다.

(4) 리지웨이와 彭德懷의 作戰指導 分析 (作戰限界點을 中心으로)

중공군의 정월공세는 새로 부임한 미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와 중공군 지원군 사령관 彭德懷가 최초로 격돌한 한판 승부였다. 특히 彼我 공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므로 각 지휘관의 조치는 작전의 成敗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本節에서는 리지웨이와 彭德懷의 作戰指導를 중점적으로 기술하되, 주로 作戰限界點 측면에서 심리적·물리적 작전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였는지에 대해 焦點을 맞추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리지웨이의 作戰指導

가. 作戰構想

미 제8군사령관에게 내려진 戰略指針은 “아군의 人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저항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리지웨이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에 리지웨이는 “逐次陣地上的 방어”라는 作戰概念 아래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그 내용은 38도선에서 부산까지 300km의 縱深에 6개의 방어선을 사전에 준비하여 적이 공격하면 화력으로 최대한 피해를 주고, 저지선이 돌파될 위험에 빠지기 직전에 차후진지로 후퇴하는 방법을 되풀이한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언뜻 보기에는 遲延戰과 유사하나 지연전의 작전목적 측면에서 공간을 양보하고 시간을 획득(Trade space for time)하기 보다는 전투력 보전에 그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戰略指針이 “아군의 人的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었고, 리지웨이는 전장에서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부대를 정비하여 재차 공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攻勢移轉을 통해 적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투력의 保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적의 진출을 저지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연속적인 防禦作戰의 반복을 통해 중공군과 북한군의 출혈을 강요함과 동시에 戰意를 말살시켜 궁극적으로는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

리지웨이(李志偉)가 '축차진지상의 방어'라는 腹案을 갖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²¹⁾

첫째, 전략지침과 작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축차진지상의 방어작전이 병력을 온전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단 전투가 개시되면 초기에는 攻者의 전투력 소모가 크나, 일정한 시점 즉, 防者가 作戰限界點을 초과하여 攻者가 전과확대 및 추격단계로 들어서면서부터는 防者의 손실이 급격히 증대되게 된다. 그 이유는 앞의 戰場의 심리적 요인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防者가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攻者의 殺傷抵抗感이 감소되어 무자비한 殺戮이 감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지웨이는 防者의 입장에서 作戰限界點에 도달하기 이전에 차후진지로 自意에 의한 철수를 실시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보전하는 한편, 적의 兵站線을 신장시키고 攻者로 하여금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결정적인 時機에 공세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공군의 공세지속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이용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중공군의 1, 2차 공세를 면밀히 분석한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공세능력이 1주일~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공세기간 동안의 작전거리도 40~50km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였다.²²⁾

21) 陸軍士官學校, 『韓國戰爭史』(서울: 일신사, 1996), p. 448.

22) 中共軍의 1차 공세는 1950. 10. 25~11. 6일까지 실시되었으나 대규모 전투는 10월 26일에 시작되어 11월 2일 미 제8군 主力이 청천강 이남으로 물러나면서 8일만에 종료되었고, 2차 공세는 1950. 11. 25~12. 6일까지 실시되었으나, 실제로는 12월 2일 중공군이 후퇴하는 유엔군의 추격을 멈추면서 역시 8일만에 종료되었다. 結果論으로 볼 때 정월공세 역시 1950. 12. 31일 공격이 시작되어 彭德懷가 추격을 중지한 1951. 1. 8일까지 약

실제로 당시 중공군의 작전지속능력에는 많은 제한이 있었다. 중공군 1개 사단의 일일 보급량은 미군 사단이 600~800톤이었음에 비해 불과 50톤 이내였기 때문에 미군에 비교해 볼 때 1/4의 보급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각개 병사의 경우 미군은 60파운드였으나 중공군은 8~10파운드로서 1/6에 불과하였다.²³⁾

중공군의 수송능력은 극히 빈약하였고, 현대식 전투근무지원 체제라는 것을 그때까지도 구비하지 않은 군대였다. 빈약하나마 중공군의 전투근무지원 체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당시 리지웨이의 상황판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아 식량, 탄약 등의 보급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食糧은 병사들이 1일분을 각기 휴대하였고, 대대와 연대에서 각 2일분의 추가식량을 보유하였다. 당시에 중공군의 식량은 초면(炒麵)이라는 전투식량으로써, 밀 70%와 콩 및 옥수수 30%를 원료로 하여 삶은 다음 말려서 0.5%의 소금을 섞은 것이었으며, 각개 병사는 전투시에 이것을 휴대하고 다녔다.²⁴⁾

탄약은 화포의 경우 1문 당 10~20발, 경기관총 정당 300발, 중기관총 1,000발, 자동소총 100~200발, 수류탄은 개인당 4발씩 휴대했다.

위의 統計資料에 의하면 식량은 기껏해야 5일분만을 휴대하였다는 것이고, 탄약 휴대량 역시 매우 적은 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시적인 보급체제가 작전지속 기간에 제한을 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공세기간은 5~7일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웠다.²⁵⁾

이러한 면이 중공군으로 하여금 단기간에 치열하게 공격을 실시한 후에

8일간 진행되었다.

23) Max Hastings, *The Korean War*, 1988, 홍성태, 「韓國戰의 機動戰 分析」, 陸軍 教育司令部, 1996, p. 89. 再引用.

24) 炒麵은 균형있는 영양소를 구비하지 못해 장기간 식량으로 代用하면 구강염이나 臟器에 異狀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

25) 홍성태, 「韓國戰의 機動戰 分析」, 陸軍 教育司令部, 1996, p. 101, p. 187.

接敵離脫하는 전술을 구사하도록 만든 근본요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위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38도선 이후의 축차진지는 서울 남쪽 55km의 37도선 부근이 적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여기서 서울을 固守할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리지웨이는 서울을 고수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얼어붙은 한강과 중공군의 공세지속능력을 고려한다면 전술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37도선으로 물러나면 한반도의 지형은東西의 폭이 좁아지고, 또한 중공군은 그들 자체의 제한사항 때문에 전진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반격으로 전환해서 적의 전력을 激滅시킨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계속되는 축차진지상의 방어는 적을 피로하게 만들 것이고, 이 기회를 틈타 적을 粉碎한다는 것이다.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리지웨이의 작전방침과 개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戰訓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축차적인 방어선을 설정하여 아군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함으로써 적으로부터 결정적인 피해를 입기 이전에 병력을 保全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실례로 1950년 12월 26일 서부전선을 시찰한 리지웨이는 미 제 1, 9군단이 철수할 경우 이를 엄호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북쪽에 중간통계선인 서울 橋頭堡線을 설정하였다. 橋頭堡線은 한강에 설치된 부교들이 적의 포격권에 들지 않도록 縱深을 유지하기 위해 행주 부근의 한강계방-의정부 남쪽-서울 동쪽을 연하는 반원형으로 설정하였다. 리지웨이는 양 개 군단장에게 이 선으로 철수할 경우 공격해 오는 적을 逆攻하면서 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적이 통과할 도로변의 감제고지에 보병과 機甲으로 편성된 강력한 부대를 배치하여 주력부대들이 橋頭堡線으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적의 진출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²⁶⁾ 또한 한국정부에 3만 명의 노무자를 요청하여 1950년 12월 27일부터 1만 명은 한강을 중심으로, 2만 명은 평택지역에 투입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중심을 가

26) 國防軍史研究所, 前揭書, p. 291.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적의 작전한계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즉 중공군의 공세지속능력이 7~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판단한 후, 그것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37도선까지 적을 끌어 들여 작전한계점에 봉착하도록 유인하였다. 리지웨이는 적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37도선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 적의 주력을 격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리지웨이는 중공군의 정월공세가 끝나자 반격으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고 지체 없이 반격작전을 실시함으로써 彭德懷에게 물리적·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가하였으며, 결국 3월 이후에야 공세를 실시한다는 작전방침을 변경하고 강요에 의해 1951년 2월 제4차 공세(일명 2월 공세)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중공군의 작전템포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防者의 입장에서 공자의 작전템포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에게 계속적으로 마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세적 방어'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의 교전으로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자의 企圖를 좌절시킬 수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리지웨이는 병력 대신 미군의 강점인 화력을 이용하여 아군의 전투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에게 최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리지웨이가 부임하자마자 미 본토에 야전포병 10개 대대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넷째, 리지웨이는 군사지도자로서 정치적 목적보다는 군사적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리지웨이가 부임하면서 맥아더와의 면담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한 결과이기도 했다. 즉 서울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정치적·전략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리지웨이는 군사적 목적을 중요시 여겨 서울을 고수하기 위해 전투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하였다. '서울'이라는 곳의 지형적인 조건이 적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할 지점이 아니며, 적 역시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주공을 지향한 만큼 彼我간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不問可知였다. 따라서 리지웨이의 입장에서는 반격을 통한 적 부대 擊滅이 주목적이므로 서울을 포기하더라도 적의 작전한계점 도달시기를 고려하여, 아군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적이 주력을 격멸함과 동시에 아군의 전투력은 決戰을 위해 보전하려는 작전을 구상하였다.

다섯째, 적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즉각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방침을 사전에 구상하였다.

리지웨이는 축차 방어선이 철수를 위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고, 각 단계마다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線임을 분명히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 9군단이 D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할 무렵 리지웨이는 양 개 군단이 철수시에 적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지연전도 펼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엄중 경고하였다.

1월 8일, 중공군은 정월공세를 종료하고 휴식 및 정비에 들어갔으나, 中東部戰線에서는 원주 확보를 위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彭德懷는 유엔군이 중공군에 의해 대규모 공세를 당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하고 공격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때 정비를 완료한 중공군이 춘계공세로 유엔군의 주력을 재차 격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리지웨이는 팽덕희의 예상을 뛰어넘어 중공군이 공세를 종료한지 불과 일주일 뒤인 1월 15일 서부지역에서의 위력 수색작전(Operation Wolfhound)을 통해 적과 접촉을 이룬 후 1월 25일부터 적극적인 공세작전(Operation Thunderbolt)을 실시하였다.

공세로 전환하면서 리지웨이가 하달한 작전방침의 핵심은 “지역의 확보보다는 아군 전력의 보전과 공산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적의 대규모 공격이 감행되면 계획된 축차방어선으로 철수하면서 전선의 연결과

적의 배후침투 및 돌파를 거부하면서 적의 공격기세가 한계점에 도달하면 즉시 공세로 전환하여 적의 출혈을 더욱 강요한다”는 것이었다.²⁷⁾

이 결과 리지웨이의 공세는 팽덕회에게 엄청난 심리적 기습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3월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겠다는 중공군의 계획을 변경시켜 어쩔 수 없이 2월에 공세를 실시하도록 강요하는데 성공하게 된다.

리지웨이가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은 부임시 맥아더와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리지웨이는 신고를 마치고 “情勢 推移로 보아 공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세를 취해도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맥아더는 “당신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그대로 하시오. 이제 8군은 당신 것이요”라고 대답하였다.²⁸⁾

리지웨이가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의 作戰指導는 彼我的 작전한계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我軍의 전투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적으로 하여금 조기에 한계에 도달토록 하여,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공세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나. 心理的 作戰距離의 增大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지웨이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후퇴적 타성(Retreating Inertia)과 敗北意識이었으며, 예하 지휘관들의 통솔력에도 많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전투원이 싸울 의지가 없다면 이미 그 전투에서 패한 것과 다름없다. 즉, 심리적으로 이미 작전한계점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지웨이에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작전거리를 증대시키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를 위해 리지웨이는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²⁹⁾

27) 온창일, 前掲書, pp. 875~876.

28)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김재관 譯, 「韓國戰爭」(서울: 정우사, 1981), p. 100.

29) 陸軍本部, 軍事研究室 譯, 前掲書, pp. 89~94.

첫째, 화력운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력을 최대한 사용하기 전에는 화력지원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리지웨이는 “나는 훈련에서는 물론, 유럽 전선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포가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도 지원을 요청하는 지휘관을 실제로 보았다. 나는 부대가 가지고 있는 소총, 전차포, 고사포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사용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지원요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한편, 화력밀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리지웨이는 즉시 야전포병 10개 대대를 급파시켜 줄 것을 국방성에 요청하였다.

둘째는 보급에 관한 것으로, 리지웨이는 한국전쟁 개전 이후 유엔군이 많은 무기와 보급품을 유기했던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실제로 그 損失量은 제2차 세계대전시의 미군에 견주어 볼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모든 군수품이 14,000 km나 떨어진 먼 곳에서 수송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기나 보급품 등을 분실, 파기시키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휘관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병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패배의식이 만연한 것이 지휘관의 戰意가 부족한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미군들 사이에서는 항상 我軍의 후방에 출현하는 중공군들에 대해 일종의 신비감이나 경외심마저 가지고 있었다. 어느 참모가 모 일간지의 기자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후퇴하게 되겠지, 질서정연하게 말이야. 우리는 그것에 익숙하니까”라고 답변한 것만 보아도 당시 분위기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곧 닥쳐올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戰意를 되살리고, 긍지를 갖게 하며, 통솔력을 회복하고 임무에 대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리지웨이는 일선 지휘관들에게 “도로에만 집착하여 도로변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을 잊고, 전선 사이의 연락을 취하고 유지하지 못하며, 地勢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이를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걷기

를 싫어하며, 적이 있는 산과 관목 속에 들어가 싸우기를 싫어하는 등의 행위는 조상이 무덤 속에서도 외면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휘관은 항상 적과 싸우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전투현장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미 제8군 장병들이 품고 있는 두 가지의 본질적 의문, 즉 "왜 한반도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의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며, 표면적으로는 韓國民을 위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고 부하 장병들의 의문을 풀어주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그리고 "적을 찾아내라, 적을 포착하라, 적과 싸워라, 적을 섬멸하라"는 미 육군의 오랜 슬로건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다.³⁰⁾

이와 더불어 리지웨이는 장병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 즉 따뜻하고 규칙적인 식사, 가족에게 편지를 쓸 문방구 등에 신경을 썼으며, 병사들의 손을 따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장갑을 충분히 공급하게 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부대가 작전한계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술적 결함으로 인해 적으로부터 측면 또는 후방으로 포위를 당하는 것, 그리고 지휘결함이다. 리지웨이는 수년간의 전투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미 제8군에게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철수로 인해 측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부단한 전선시찰과 솔선수범을 통해 部隊員이 戰意를 회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강조하였다. 이로써 중공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경외심, 신비감 등을 제거하고 심리적인 작전거리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 物理的 作戰距離의 增大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물리적인 전투력의 적시 적절한 증원, 투입을 통해 작전거리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물리적인 작전거리를 증대시키기 위

30) 김재관 譯, 前揭書, pp. 105~106.

해 노력한 리지웨이의 作戰指導를 전례를 통해 그가 조치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낙오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이다. 리지웨이가 부임 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중공군의 공격이 개시되자 나름대로의 노력도 헛되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 리지웨이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³¹⁾

트럭에 탄 한국군이 무질서하게 무기를 버리고 지휘관도 없이 마구 후퇴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가능한 한 중공군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다.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落伍者 統制所를 훨씬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이 효과를 보였다. ... 재편성된 병력들의 대부분은 잘 훈련되고, 바르게 지휘된 용감한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잘 싸웠다.

둘째, 조직적인 철수를 통한 전투력 보전이다. 즉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기에 방어에서 自意에 의한 철수로 작전의 형태를 변경하되, 적에게 화력을 통한 최대한의 피해를 강요하였다.

리지웨이에게 부여된 최우선의 임무는 “人的 損失의 最小化” 즉 전투력 보전이였다. 미 국방성의 지침도 그러했고 리지웨이도 공세로 이전해서 적에게 결정타를 가하기 위한 전투력을 확보해야만 했다. 리지웨이는 1월 3일 오후 서부전선의 유엔군에게 철수명령을 하달하면서 미 제1, 9군단이 상호협조 하에 철수하되 병력의 손실이 없도록 유의하고, 부상자와 전사자는 반드시 후송시키며, 사용 가능한 장비를 유기하지 말고,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³²⁾ 이에 따라 미 제1, 9군단의 부대는 중공군이 1월 3일 전과확대 및 추격으로 전환하여 철수하는 부대를

31) 上揭書, pp. 111~112.

32) 온창일, 前揭書, p. 871.

공격하였으나 성공적으로 接觸을 단절하고 순조롭게 철수할 수 있었다.

또한 1월 1일 미 제1, 9군단은 서울 橋頭堡線으로, 한국군 3개 군단은 제2방어선(Line C)으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미 제1군단장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橋頭堡線을 확보하도록 강조하였으나 리지웨이는 이 선을 최후의 결전장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군의 사기를 고려해서 큰 손실을 입지 않고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橋頭堡線 방어의 死守 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이다.³³⁾ 같은 날 적의 공격이 개시되어 동두천 일대의 한국군 제6사단이 어렵게 철수하고 있을 때, 리지웨이는 제6사단장에게 덕정 일대의 예비진지 점령을 포기하고 창동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철수시 接觸을 단절하고 최대한 전투력을 보전하도록 철수시기를 결정하였다.

셋째, 적이 작전한계점에 이르러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서울’이라는 지역목표에 연연하지 않았다. 당시 ‘서울’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컸다. 그러나 리지웨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우리는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군대를 신속히 재정비하여 공세작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한 말은 적의 공세가 개시되자 ‘空論’이 되고 말았다. 리지웨이의 의도와는 달리 유엔군이 38도선 전투에서 적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면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리지웨이가 서울 철수를 결심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1월 2일 한강상에 설치된 浮橋를 통제하던 공병부대의 보고 때문이었다. 즉 한강이 완전 결빙되어 있어 적의 전면공격이 가능하고, 결빙된 한강을 통해 우회 공격해 올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결빙된 한강을 이용해서 피난민이 남하하는 경우, 중공군은 피난민을 방패로 이용해서 아군 진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피난민 대열로 인해 아군의 부대기동과 물자수송이 제한됨으로써 차후 작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의 이유는 동부전선의 불안 때

33) 國防軍史研究所, 前掲書, pp. 306~307.

문이었다. 즉 동부 산악지대를 통해 사전에 침투한 북한군 제2, 5군단의 공격으로 인해 원주가 피탈될 경우 서부전선 부대들이 우측방으로부터 적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³⁴⁾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한 리지웨이는 유엔군에 대한 위협이 결정적인 시기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3일 정오 무렵에 서울 철수에 대한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던 것이다.

넷째, 신속한 예비대 및 증원부대의 투입을 통한 공세행동이다. 이것은 작전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리지웨이는 흥남에서 철수한 미 제10군단을 제2 선상에 배치하여 부대를 재정비하면서 예상되는 적의 위협에 대처하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2일 저녁에는 橋頭堡線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泰國軍 대대를 英 제29여단에 배속하고, 경주에서 전방으로 이동중인 미 제10군단의 야전포병 2개 대대를 적의 주공이 지향하고 있는 미 제1, 9군단 지역에 추가로 배치하였다.

中東部戰線의 위기로 한국군 제2, 5, 8사단이 담당하던 춘천 정면이 돌파됨으로써 서부전선에 배치된 유엔군 주력의 右側防이 위협을 받게 되자, 리지웨이는 1월 2일 미 제10군단의 투입을 결정하였고, 군단간의 戰鬥地境線과 예하 부대의 배속을 일부 조정하여 전투편성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춘천 정면에서 남하하는 적의 진출을 저지함과 동시에 인제-홍천 일대에 형성된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도록 하였다.

후방지역의 위협에 대비하여 1월 2일 전투편성을 재구성하면서 한국군 제2군단(제 11사단 배속)을 대전으로 이동시켜 후방지역의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³⁵⁾ 제3방어선(Line D)으로 철수한 후인 1월 4일에는 미 제1기병사단으로 하여금 주력은 미 제9군단의 예비로 충주에 집결하여 병참선을 방호하도록 하고, 제5기병연대는 단양 일대에서 활동중인 적 유격대의 준동에 대비토록 조치하였다.

34) 上揭書, pp. 309~310.

35) 溫璋일, 前揭書, p. 870.

다섯째, 철수간 장비 및 물자의 수송과 거부대책을 통해 아군이 유기한 장비 및 물자를 적의 사용함으로써 작전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였다. 철수시 문제가 되는 것은 장비 및 물자의 수송이다. 적의 추격이 계속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시간에 쫓겨 많은 보급품을 수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유기할 경우 적의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군은 부족하고 적에게는 여유를 주는 二重苦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작전간에 아군이 약 80%에 달하는 장비와 물자를 한강 이북에 방치하고 철수함으로써 차후 작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리지웨이는 1월 3일 제2방어선(Line C)으로 철수시 제4방어선 북쪽에 위치한 보급시설들을 철수시키고 인천항은 4일 정오에 폐쇄시켰다. 오후에는 김포비행장의 건물, 항공유, 네이팜탄 등을 파괴하였으며 인천과 김포간의 송유시설을 파괴하여 적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또한 인천항은 1개의 부두 시설과 월미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파괴시켰으며, 이 작업은 5일 15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인천항의 파괴는 적으로 하여금 항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점에서는 이해가 가나 유엔군이 절대적인 해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파괴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³⁶⁾

2) 彭德懷의 作戰指導

리지웨이가 제2차 세계대전시 풍부한 물량과 비교적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싸웠던 것에 비해 彭德懷는 抗日戰爭, 國共內戰 등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전투를 경험하였다. 이 때문에 彭德懷는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그 나름의 경험에 바탕을 둔 作戰指導로 2차에 걸쳐 유엔군을 38도선까지 축출할 수 있었다. 팽덕회가 작전을 지휘하는 것을 보면 항상 부족한 전투근무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중공군의 5차에

36) 國防軍史研究所, 前揭書, p. 315.

걸친 공세 모두가 短期에 치열하게 전투를 실시한 후에는 接敵離脫 하여 휴식 및 정비를 취하고, 다음 공세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이다. 특히 정월공세는 중공군이 1, 2차 공세를 통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병참선도 과도하게 신장되었으며, 전투피로도 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택동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수행되었으므로 軍事指導者로서 彭德懷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세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면에서 彭德懷의 作戰指導는 자신의 작전한계점을 인식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의 측면에서, 적의 작전한계점을 이용해 결정적인 공세로 전환하려는 리지웨이의 作戰指導와 잘 對比될 수 있을 것이다.

가. 作戰構想

1, 2차 공세를 통해 팽덕회는 미군이 병참선 차단에 민감하며, 차단되면 습사리 붕괴되기 마련이라는 약점을 지닌 반면에 중공군은 최소의 보급지원 하에서도 전투할 수 있고, 도보에 의한 산악 주파 능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엔군의 약점을 뚫고 산악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병참선으로 신속히 기동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첫째, 팽덕회가 작전한계점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유엔군을 물리적으로 작전한계점에 도달시키는 것은 중공군의 여건 및 능력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리적으로 조기에 작전한계점에 도달시킬 수 있는 方策을 구상하였다. 그것은 '奇襲과 '유엔군 후방 縱深으로의 機動을 통해 작전의 템포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기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彭德懷는 약 180km 밖의 원거리로부터 접근하면서 유엔군을 공격하는 계획을 구상하였으며, 실제 이동간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평양, 양덕, 곡산 등지에서 소규모로 집결하면서 이동하였다. 또한 공격개시시기를 아군의 경계가 느슨해 질 때인 12월 31일로 결정하여 시간적인 기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유엔군 후방 縱深으로의 기동을 위해서는 이미 유엔군이 견고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한 상태였으므로 우선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집중해서 돌파구를 개척한 후, 유엔군에 대한 分割包圍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심을 향해 진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투력을 편성하였다. 또한 東部戰線의 배치가 취약하고, 방어간격이 비교적 넓으며, 한국군만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북한군 제10사단을 사전에 침투시켜 동부전선의 유엔군을 압박함과 동시에 西部 미군의 右側防과 후방을 위협하여 교란(Dislocation)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작전의 템포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전적 절단과 함께 전술적 분할 포위를 실시하고, 중심기동부대는 불필요한 교전을 회피하면서 최소의 교전으로 유엔군의 후방으로 중심 깊게 기동함과 동시에 정면에서의 강력한 압박과 함께 침투, 습격 등 다양한 전술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팽덕회는 중공군의 병참선이 과도히 신장되어 작전한계점에 이르지 않도록 작전을 구상하였다. 彭德懷는 2차 공세시 유엔군이 그토록 빨리 철수한 것이 중공군의 공격력에 의한 것도 있지만, 주력의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이미 설치해 놓은 진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유엔군은 중심상에 수 개의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유엔군은 2차 공세시와 마찬가지로 준비된 진지로 철수하면서 중공군을 유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彭德懷는 유엔군의 誘引에 말려들어 너무 깊숙이, 너무 멀리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38도선을 돌파 후 상황의 추세에 따라 추격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³⁷⁾

나. 心理的 作戰距離의 增大

리지웨이가 미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하였을 때 유엔군은 戰意를 상실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중공군은 1, 2차 공세를 통해

37) 洪學智, 『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解放軍 文藝出版社, 1991), 홍인표 譯, 『중국이 본 韓國戰爭』(서울: 고려원, 1992), p. 154.

미군을 38도선까지 밀어냄으로써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겼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彭德懷는 이러한 점이 우려되었다. 즉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바뀔 수 있으며, 실제로 중공군들 사이에는 미군에 대한 경시풍조가 일부 만연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따라서 팽덕회는 政治工作³⁸⁾을 통해 전투의지를 향상시키고, 전 장병이 적을 정확히 인식하여 왕성한 사기와 어떤 곤란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정신을 高揚하도록 하였다.

다. 物理的 作戰距離의 增大

첫째, 彭德懷는 중공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전투근무지원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세를 준비하였다.

- ① 중공군과 북한군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聯合司令部'를 설치하였다. 소련으로부터 보급된 장비와 무기로 재무장한 북한 제 1, 2, 5군단 14개 사단 7만 5천명의 전선투입이 가능하게 되자 12월 상순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고 彭德懷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兩軍을 통합 지휘하도록 하였다.
- ② 제19병단을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갖추게 하였고, 2차에 걸친 공세작전으로 입은 병력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8만 4천명의 고참병을 동원하였으며, 북한지역에서도 신병을 모집해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였다. 제19병단은 1951년 3월에 북한에 도착하였다.
- ③ 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경의선(정주-맹중리), 만포선(희천-개천) 線路를 보수하고 도로와 교량의 보수를 위한 공병을 증강하였다.

38) 中共軍 公刊史에 의하면, 政治工作은 혁명의 政治精神을 군대내에 주입시키고 인간의 주관적인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며, 전체 병사들에게 고도의 전투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기록되어 있다.

中國人民解放軍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研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史』(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韓國戰略問題研究所 譯, 『中共軍의 韓國戰爭史』(서울: 世經社, 1991), pp. 336~337.

④ 북한지역에서 조직적인 현지조달을 실시하여 3만 톤의 식량을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후방의 보급수송과 후방기구를 강화하였으며, 기존의 9개 대형 정거장을 11개소로 증설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공군은 병참선이 신장되어 현지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민간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중공군 참전시 “조선의 산천초목을 애호하고, 조선 인민으로부터 바늘 한 개, 실 한 바람이라도 빼앗지 말 것”을 요구하여 주민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통해 점령지역을 작전기지화 하였다.

두 번째는, 공세가 개시되어 유엔군이 철수하자 팽덕회는 영웅심리에 휘말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정지할 줄 알았다. 대부분의 지휘관은 적이 철수할 경우 승리감에 도취되어 객관적인 상황판단은 뒤로 한 채 추격에 열을 올리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패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을 대부분의 전례가 증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彭德懷는 달랐다. 아마도 그는 리지웨이가 자신을 작전한계점까지 끌어들이고 후 결정적인 시기에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구상을 읽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 중공군이 판단했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戰役이 개시된 후 적군은 강력한 저항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어떠한 접촉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퇴각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살펴볼 때 적군은 계획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戰力을 유지하면서 아군을 깊숙이 유인한 후 반격할 기회를 찾으려고 한 것 같다.

이에 따라 彭德懷는 1월 4일 서울을 점령하여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일단 달성하자 중공군 제50군 1개 군만으로 하여금 후퇴하는 유엔군을 추격하도록 하고, 제38, 39, 40군 등의 주력부대는 한강 북쪽 기슭에서 3일 동

39) 上揭書, p.94.

안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부의 병력만으로 추격작전을 실시하고 나머지 병력은 作戰休止(Operational Pause)를 취하는 변형된 '작전형태의 변경'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또한 유엔군이 37도선으로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한 후인 1월 8일에는 전군에 추격정지 명령을 내렸다. 더 이상의 추격은 중공군의 작전한계점 도달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팡덕회가 추격을 정지한 구체적인 이유는 먼저, 중공군은 2개월여의 연속된 작전으로 이미 피로해 있고, 병력손실도 엄청났다는 것이다. 둘째로 승리를 하긴 했으나 결정적으로 유엔군의 주력을 격멸하지 못한 관계로 彼我 戰力比에 큰 변화가 없어 아직은 결전의 시점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셋째, 병참선이 이미 500~700km에 이르러 보급수송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현지조달 역시 그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넷째, 東西海岸 방어에 허점을 보여 유엔군이 또 다시 상륙작전을 실시할 경우 인천상륙작전의 再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彭德懷는 정월공세를 종료하고 일선부대에 명령을 내려 휴식을 취하도록 했던 것이다. 다만 중공군 제50군과 제38군 112사단, 북한군 제1군단의 2개 사단만은 한강 남쪽에서 교두보의 확보와 한강대교 남쪽 진지의 경계를 맡았고, 제42군 125사단이 남한강 동쪽에서 정면의 상대를 계속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다.⁴⁰⁾

중공군 주력이 휴식을 취한 지역을 보면 제39군이 의정부 일대, 제38, 40군이 서울 북동의 수락산 일대, 제66군은 양덕원리 부근의 한강 이북지역으로 유엔군과 완전히 接敵을 단절한 상황이었으며,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한다 해도 주력의 보존을 위해 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 결과 리지웨이는 서부전선에서 1월 15일 위력수색작전을 통한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면서 적을 찾고, 적과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 후에야 비로소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40) 홍인표 譯, 前掲書, p. 173.

IV. 結 論

지금까지 중공군의 정월공세를 중심으로 피아 지휘관들이 작전구상 및 실시단계에서 어떻게 작전한계점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당시에 작전한계점에 관한 교리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뇌리 속에는 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리지웨이는 미 제8군사령관으로 보직되자마자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직면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중공군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전투근무지원상에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작전지속일수가 7~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전거리도 40~50km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리지웨이의 작전구상은 중공군을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도록 유인한 후, 리지웨이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공세로 이전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리지웨이가 선택한 결정적인 지점은 평택-안성을 연하는 방어선이었다.

그러나 리지웨이가 선택한 결정적인 지점에서 공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중공군의 전투력을 최대한 약화시킴과 동시에 아군의 전투력을 보전해야만 했으며, 이를 위해 리지웨이는 그들의 강점인 화력으로 적에게 최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계획된 지점으로 중공군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리지웨이의 예상대로 중공군은 서울을 점령한 이후부터 공격기세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1월 8일을 기해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는 종료되었다.

彭德懷 역시 만만치 않은 지휘관이었다. 그는 리지웨이가 전투를 회피하면서 축차적인 방어선으로 물러나자 미군이 중공군을 유인한 후 결정적인 공세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의 추격을 중지한 채 증강된 1개 군 규모로 미군을 견제하면서 나머지 병력은 38도선을 연하는 선에서 휴

식을 취하도록 명령하였다. 필자가 '작전의 형태변경'이라는 용어 대신에 '작전휴지(Operational Pause)'라는 용어를 쓴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위와 같이 리지웨이와 彭德懷는 상대적 강·약점인 작전한계점을 작전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正月攻勢는 勝敗를 떠나 피아 지휘관의 作戰指導가 한층 돋보인 작전이었다.

작전한계점은 전술적 차원보다는 작전술 차원에서 戰役司令官이 작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개념적인 도구로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단 개시된 후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지휘관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특히 장차전은 기동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작전한계점을 판단하고 적용하며, 극복할 것인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기동전적 사고와 행동은 작전 거리를 증대시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결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의 교전으로 작전의 템포를 달성함과 아울러 목표 후방까지도 전투력의 여력을 보전하는 것이다.

전투지휘관 적대적이며, 생각하는 적을 상대로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은 作戰指導 측면에서 적의 생각을 읽고, 전황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감상주의나 승리욕, 명예욕에 집착하여 주관적 상황판단에 좌우되어 결심할 경우, 일단 결심이 되면 일부는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결심 이후에 수반되는 활동을 예측 및 이해해야 한다. 즉 맹목적 용기보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균형감각과 解安(coup d'oeil)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